

● **연중 제 3주일강론**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은 바오로는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머물지 않고 서방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든 일등공신입니다. 그는 3차에 걸친 선교여행에서 많은 교회들을 설립합니다. 신약성경의 바오로 서간은 대부분 바오로 자신이 설립한(물론 성령께서 세우셨지만) 교회의 여러 위험을 걱정하며 격려와 권고, 질책과 충고를 담은 내용들입니다.

새로이 세워진 지역 교회에 대한 바오로 사도의 가장 큰 걱정은,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이 여린 싹을 틔우는데,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무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 공동체를 갈라지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코린토 교회의 경우처럼, 교회 내에 저마다 바오로 편, 아폴로 편, 케파 편, 그리스도 편으로 분열이 되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분열이 바오로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였고, 걱정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오로는 오늘 이렇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1코린 1, 10).

바오로 사도가 밀레토스에서 에페소 원로들과의 마지막 감동적인 이별의 장면에서도 바오로는 격한 눈물을 흘리며 공동체의 일치를 강조하였습니다(사도 20, 18~35 참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분열의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 옛날 바오로 사도의 시대처럼, 대부분 순박하고 겸손한 교우들이 아니고 교만과 허세에 가득 차, 그 교회에 기득권 세력을 쥔 그야말로 유지들이 그 같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리하여 사사건건 사목자의 일에 파벌을 조성하여 반대를 일삼고 심지어 집단으로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교만한 유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시골에 가더라도 이 같은 허세 부리는 유지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유지…, 제 자신은 이들을 ‘유지(油紙)’라고 부릅니다. ‘기름종이’, ‘기름종자’들 이란 뜻입니다. 이들의 대표

적인 특징 중 하나는, 물에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물과 분리되어 뚱뚱 떠 있습니다. 신앙의 종이에 교만과 허세의 기름칠을 하여 하느님 백성과 흡수되지 않고 저희들끼리 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저 권능의 옥좌에서 내려 오시어 세상 천민들, 죄인들 속에 흡수되시어 사셨는데, 인간이 감히 교만스럽게 떠있습니다. 예수님 회개의 준엄한 외침은, 분열을 조장하는 이 같은 무리들에게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본당 사목 중 가장 졸렬하고 보기 흉한 모습은, 회장 이든, 단체장이든 책임을 맡은 이가 임기가 되어 물러났을 때, 그 직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백의중군의 자세로 자신의 후임자를 잘 보필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섭정을 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꼴불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임기 때가 더 좋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신임 단체장보다 전임 단체장이 더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 가지고서야 어떻게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파벌을 조성하여 자신의 세를 불리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행태들이 순수한 교회를 멍들게 하고, 많은 교우들의 눈에 실망을 안겨주어 그들이 거룩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즈불론과 납탈리 땅, 어둠과 암흑의 땅에 사는 천대받는 백성들에게로 손수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백성들에게 빛으로써 선포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 17).

암흑의 슬픔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섞이지 못했던 교만, 어둠의 통곡 소리를 듣지 못했던 나태, 천대받는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던 무관심, 죽음의 검은 독버섯이 얼굴에 피어올라도 자각하지 못했던 기득권 싸움 등을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권력을 남용하여 공동체 위에 군림하려 들었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 외치시는 것입니다. 온갖 으름장을 놓으면서 가뜩이나 기가 죽어있고, 힘

이 없는 불쌍한 당신 자녀들을 괴롭혔던 그 같은 작태를 어서 멈추고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하느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어떠한 압력으로든 짓밟은 죄를 뉘우치라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존엄하신 하느님의 자리에 무엄하게도 자신이 앉으려 하였던 교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 속으로 들어가 빛이 되자는 초대 말씀입니다.

배광하 신부 <춘천교구 갯세마니 피정의 집 원장>

우물과 마음의 깊이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돌맹이 하나를 던져보면 압니다.

물이 물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얕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깊고 풍성하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의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갈증이 해소 되며 새 기운을 얻습니다

비난이나 경멸의 말(돌던짐)에 내 우물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마음의 우물은 얼마만큼 깊고 넓을까요?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

고요한
예언자
성부와
정성된

한밤중에
우리에게
성자성령
찬미찬송

주님앞에서
권고한대로
삼위일체께
드리나이다

지극히
유일한
심위로
언제나

거룩하신
본성본체
일체심을
끊임없이

우리하느님
지니셨기에
홍송하오며
찬미하리다

밤이면
진멸의
예리한
에집트의

옛두려움
하늘천사
죽음의칼
두손에잡고

되살아나네
에집트땅찾아
두손에잡고
만이들을
모두죽였네

의인은
문설주
천사가
간택된

그밤에도
양의피로
받길돌려
주님백성

구원됐다네
칠하였더니
지나가시어
살려주셨네

우리는
예수의
원수와
다함께

하느님의
붉은피로
악령들을
주님안에

간택된백성
구원됐으니
업신여기며
기뻐하리라

지극히
우리게
영원한
주님을

인자하신
천상영광
찬미노래
무궁토록

천상임금님
허락하시면
불려드리며
기리오리다.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신부님 사랑해요!!
항상 열과 성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고원일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사제 서품을 받으신지 9년이 되었습니다. (1999년 1월 30일).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우 모두 정성 어린 영적 선물을 바칩니다.

◎ 바뇌기도회 모임 일자 변경
▶2월 6일(수) 오후 7시 30분 이명희형제집

◎ 1월 사목회의
오늘 미사후 김직현 형제집에서 있습니다. 사목위원 및 각구역장님은 모두 참석해 주세요

◎ 매일 미사책 추가 접수
오늘 마감됩니다. 금액은 \$48/일년
▶신청 ; 박 재영 선교부장 (B)519-578-8690

◎ 집에서 사용할 개인 초 주문 받습니다
오늘 마감합니다 금액은 \$15/개 입니다
▶신청 : 서기 한택중 (B)519-883-8488

◎ 각 구역장님께 알립니다
2월 영명축일을 파악하여 구역부장님께 주세요

◎ 친선볼링클럽 안내
▶기간: 12월 3일~2008년 3월말 까지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Brunswick Bowling Centre (전년과 동일)
▶문의: 윤명원 행사부장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192@hanmail.net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
▶주소 : <http://club.catholic.or.kr/seobunews>
▶가입방법: 먼저 굿뉴스에 가입하시고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청소년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 주간 전례
▶1월 29일(화) 밤 8시, 연중 제 3주간화요일
▶1월 31일(목) 낮 12시, 성요한보스코사제기념
▶1월 31일(목) 밤 8시, 성요한보스코사제기념

◎ 2008년 꾸르실리스마 연례 피정
일시 : 08년2월 1일(오후 6시)- 3일(오후5시)
장소 :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er
참가비 : \$ 200, 신청마감 : 1월 27일
신청 및 문의 : 이해신 요셉

◎청소년 스키캠프
1. 대상 : Gr7~대학생
2. 일시 : 2월 16일 토요일 당일
3. 장소 : Horseshoe Resort
4. 회비 : 추후 공지
5. 접수 : 미사 후 청소년 담당선생님

◎2월 6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지난 성지주일 날 가져가셔서 집에 보관하고 계신 성지가지를 모두 가져와 주십시오.

◎공소일반공지◎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뇌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올드레아 : 매월 첫주일

2008-04 2008. 1. 20.
연중 제 3주일미사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중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례
해 설 이 민 차주 해설 김근효

화 답 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구원이시로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예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 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든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도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26) 이끌어 주소서
봉 헌 (214) 주께 드리네
성 체 (174) 사랑의 신비
되 장 (439) 부드러운 주의 손이

	독	서
1월 27일	장명길	장용경
2월 3일	고영호	고기숙
2월 10일	김현태	김진선

	봉	헌
1월 27일	이상재	이향숙
2월 3일	장명길	장용경
2월 10일	고영호	고기숙

	복	사
1월 27일	지홍	현재
2월 3일	수빈	경은
2월 10일	원영	한힘

2008년 1월 20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757.25
Total:	\$ 757.25